

7월의 채소재배관리

김 경 제
동국대학교농림대학교수

1. 호 박

쥬키니제통이나 서울마디호박을 터널재배 또는 조숙재배를 실시할 경우 마지막 수확기가 7월로써 개화 후 서양호박은 40~50일 경에 풍기가 나며 과경이목질화되어 변색되고 과경 전면에 균열이 생길때가 수확 적기이고 동양호박은 청과용으로 사용할때에 개화후 8~10일경에 수확한다. 그런데 호박은 7월 이후 재배가 평지에서는 곤란한데 그 이유는 호박의 수분에 35°C이상은 수정장해가 일어나고 지온이 높아져서 20°C가 넘으면 기형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짚을 깔아 주거나 덩굴이 발진면을 덮도록 한다. 그리고 호박은 채소작물중에서 가장 병충해가 적은 채소로써 치명적인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에는 흰가루병, 역병, 회색곰팡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방에 주력해야한다. 재배

중호박이나 백국좌등을 여름재배할 경우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가 7월이며 웃거름으로 10a당 4.5kg정도의 요소를 균일하게 주어야 한다.

데리셔스, 호우고, 우즈게등의 품종을 고냉지에 재배할 경우 생육중기가 되는 달이 7월인데 정식이후 1회 웃거름으로 10a당 요소: 4.5kg, 용과린: 5kg을 골고루 주고 온도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병충해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2. 오 이

7월은 반숙성재배, 노지조숙재배의 형태로 청장마디계나 구루미낙합제통의 오이품종을 재배하였을 경우 마지막 수확기가 되는데 이 때에는 생육말기로써 각종 영양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영양공급에 주력함과 동시에 각종 병충해가 만연되는 시기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잎수도 대단히 증가하는데 잎은 전개후 40~50일이면 기능이 떨어져 노엽이 되므로 착과부 이하의 잎은 많을수록 유리하여 10절까지 효력이 있으나 5매정도라도 효과가 있으니 적엽(摘葉)을 실시하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엽제와 구루미낙합제 오이품종을 전국적으로 노지역재배의 형태로 재배할 경우 7월중에 파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종자를 호마이 20배액에 10분간 벤레이트티 20배액에 10분간 또는 부산 30 1,000배액에 1시간정도 등 침지소독한 다음 깨끗한 물로 잘 씻은 후 미리 준비한 파종상자에 10a 당 2.0~2.5dl의 종자를 줄뿌림 하는데 간격은 4~5cm, 종자간격은 0.5~1cm로 파종한다. 파종상자를 27~28°C정도의 온도로 관리하면 파종후 4~6일 경과하면 자엽이 전개되는 시기가 되어 즉시 12×12cm크기의 각종 분죽 지-피포트 등에 미리 제조한 상토를 넣고 옮겨 심기 한다. 그런데 오이는 본래 옮겨심기를 좋아하지 않는 작물이므로 묘의 총실도 및 성분화 등을 생각한다면 분육묘를 실시하여 아주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므로 이식회수를 1회로 끝내는데 옮겨심을 때는 묘를 뽑을 때 뿌리가 끊기지 않게 주

의하고 심을때 얇게 심어야 하며 작업시 줄기를 잡지 말고 떡잎을 잡아야 하며 뿌리의 활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식전의 지온보다 이식후의 지온을 2~3°C 높게 관리하고 활착후에는 온도를 내려 도장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이를 옮겨심기 전에 살균제와 살충제 및 나루겐이나 비왕등 엽면시비제등을 혼용하여 잎 앞 뒷면에 충분히 문도록 살포하고 이식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뿌려줌으로써 활착하기 전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병충해를 미면에 방지해줌과 동시에 생육의 정상화가 계속될 경우에 발생하지 않던 병해가 이식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특히 역제재배 육묘기간은 25~30일정도 소요되는데 고온다습한 시기이므로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방제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3. 당 근

7월에 실시해야 할 당근재배 관리 사항에는 봄재배의 수확시기이고 고냉지재배형태에서는 일반관리이며 여름재배의 경우에는 파종해야 한다. 당근의 발아적온은 15~25°C, 생육적온은 18~21°C, 착색적온은 16~21°C이며 좋은 발아를 위해서

■ 채소관리 ■

는 신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하고 복토를 얇게 하며 파종후 진압은 발로 밟는 정도로 실시하고 토양수분은 많을수록 좋다. 발아후 생장에 따라 솟음질을 하는데 3회정도 실시하며 결뿌리 발생의 방제를 위하여 뿌리의 끝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미숙퇴비가 뿌리의 끝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뿌리썩김의 예방으로 토양수분의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적기에 수확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수확하기 1개월전 썬에 복주기를 해서 뿌리가 지상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당근의 뿌리에 색갈이 나타나는 것은 대개 파종후 40일경부터인데 토양습도가 높으면 색소발현이 나빠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봄재배시 장다리의 발생이 우려될 때는 엠에이취-30(마-하)을 0.25% 농도로 희석하여 뿌려주면 약 1개월정도 장다리가 늦어진다. 당근의 비료주기는 밑거름으로 10a당 퇴비: 1,000kg, 요소: 20kg, 용파린: 80kg, 염화카리: 18kg, 석회: 100kg를 시여하고 웃거름으로 3회정도 시비하는데 1회는 요소: 10kg, 2회는 요소: 10kg, 염화카리: 18kg, 3회는 요소: 10kg를 주면된다. 당근의 병충해에는 흑반병, 흑엽고병, 연부병, 균핵병, 호랑나비에벌레 및 야도충등이 발생하는데 미리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만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에 철저히 약제를 살포한다.

당근은 수확기가 늦으면 열근되거나 표면이 거칠어져 불품이 없어져 상품가치가 저하되므로 품종의 조만성에 의한 재배조건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확해야 한다. 파종후 생육일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생종 70~80일, 중생종 90~100일, 만생종 120 정도로써 수확되며 외관상으로는 겉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늘어졌을 때를 완전히 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다.

4. 파

7월은 김장용 파재배 즉, 춘파재배의 경우 육묘가 끝난 모를 아주심기해야 하며 잎파재배는 년중 단경기가 없이 수입되므로 각종 재배작업이 실시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잎파는 재배상의 문제는 별로 없고 성장이나 소비자의 기호에 적당하게 재배하면 된다. 출기파의 아주심기 방법은 우선 심을 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서로 이랑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랑나비는 모래찰흙의 경우 1.2m, 전찰흙의 경우 75cm를 기준으로 이랑을 만들어야 복주기가 편리하다. 파 심은폭은 15cm폭으로

수직이 되게 15~18cm깊이로 판다. 잎과의 경우에는 1.2m의 평이랑을 만들어 4줄의 얇은 심은꼴을 파서 심는다. 심는 방법은 햇빛이 뿌리 부분에 쏘이지 않도록 꼴의 남쪽에 밀착하여 곧게 심는데 처음에 3cm 정도 복토하고 퇴비, 풀, 질 등으로 덮어 건조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깊게 심으면 공기유통이 불량하여 새뿌리의 발생이 나빠져서 수량이 떨어진다. 줄기파에서 너비 15cm에 깊이 15cm의 꼴을 만들어 5cm간격으로 1주씩 심는다. 파재배의 밀거름은 10a당 퇴비 : 2,000kg 용성인비 : 70kg를 골고루 넣고 심는다. 파의 병충해에는 바이러스병, 모잘록병, 노균병, 역병, 흑반병, 녹병, 고자리파리, 잎굴파리, 등이 있는데 가능한한 예방에 주력하고 각종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비에 주의하며 만일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초기에 철저히 방제약제를 살포토록 한다. 특히 고자리파리는 아주심기 전에 토양 전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식후 방제할려면 반드시 약제가 토양속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물에 타서 관주해야 한다. 고자리파리는 유충인 구더기가 인경을 칩해 하는데 묘상에서 발병하면 큰 피해를 주므로 주위를 깨끗이 하여 파리가 날아 오지 않도록 하며 인분노나 덜 썩은 퇴비 등의 사용을 금하고

토양처리제를 직접 관주해 주어야 한다.

5. 배 추

결구배추에서 주로 가을 김장용으로 재배되어 오던 작형이 년중 언제나 신선한 배추의 요구와 이에 적응하여 새로운 품종의 육성보급 및 국민소득향상에 의하여 작형이 다양하게 분화됨으로써 병랑한 기후를 좋아하는 결구배추를 7월에도 재배형에 따라 파종, 육묘, 정식, 시비, 병충해방제, 수확등의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를들면 해발 400~600m의 준고냉지초여름 재배에서는 7월에 결구배추를 수확하고, 해발 800m지역의 고냉지여름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작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재배의 조만에 따라 각종 작업이 실시되며 준고냉지늦여름재배에서는 파종작업이 이루어지고 전국 평야지에서의 망사여름재배형의 경우에는 7월한순경에 파종하게 된다. 그러나 배추가 파종후 30~40일 동안은 고온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겨울에는 짱다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배추가 맛이 좋기 때문에 푸른 잎을 먹기 위해서 여름동안의 슈음배추재배와 겨울동안의 얼가리 재배등은 옛날부터 결구배추를 대신

■ 채소관리 ■

하여 널리 보급되어 온작형이며 겨울의 월동기간만 보온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년중 언제든지 파종하고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배추라고 생각한다. 7월에 파종할 때는 직파보다 육묘이식재배를 실시하는 것이 재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포리에치렌 풋트, 종이분, 지-피풋트등을 이용하여 분육묘하는 것이 좋으며 육묘기간은 파종후 20~25일 정도 소요되며 본엽 5~6매 발생하였을때 아주심기를 실시한다. 육묘도중 진딧물이 날라 오지 못하도록 모기장보다 약간 뻗 망사를 턴넬모양으로 쳐서 바이러스병을 막아 줄과 동시에 각종 해충이 들어 오지 못하므로 육묘기간중에 살충제를 뿌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강한 햇빛도 약 30%가량막아 주고 소나기 같은 큰 빗방울도 직접 어린 모의 잎에 닿지않아 피해가 크게 감소되는 유리한 방법이다.

배추재배시 비료는 밑거름으로 10a당 퇴비: 3,000kg, 요소: 25kg, 용파린: 100kg, 염화카리: 25kg, 석회: 100kg, 붕사: 1.5kg정도를 주고 웃거름으로는 1회에 요소: 15kg, 2회에 요소: 15kg, 염가: 20kg, 3회에 요소: 15kg를 나누어 시여하는데 반드시 마지막 웃거름은 배추 결구 초기에 주도록 해야 충실한 결구가 된다.

특히 7월중에 배추재배에서 발생하는 병충해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흰빛썩음병, 바이러스병, 뿌리혹병, 균핵병, 백반병, 그리고 해충에는 진딧물, 배추벼룩잎벌레 및 배추흰나비 등이 있는데 이들 병충해의 예방에 힘쓰고 발생하였을 때는 발병초기에 철저히 정확한 농약을 농도를 알맞게 하여 배추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안전한 농약사용

건강한 자연환경